

해남 가족어울림센터, 지역 문화·복지 플랫폼 ‘안착’

작년 한해 8만3천여명 방문
4천여㎡ 매머드급 복합 공간
코칭스쿨 등 만족도 4.8점대
1인가구·노년층 등 대상 확대



해남 가족어울림센터가 지난해 주민 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지역 사회 문화·복지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있다. 사진은 가족 체험마당 참가자들 모습. <해남군 제공>

해남군이 영유아 돌봄부터 다문화가족 지원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윈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해 조성한 복합 거점 시설이 연간 8만명이 넘는 이용객을 동원하며 지역사회 핵심 문화·복지 플랫폼으로 안착했다.

16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가족어울림센터' 이용객 통계 및 만족도 조사를 종합 분석한 결과, 총 8만3천146명의 군민이 시설을 방문했으며 주요 프로그램의 평균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8점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 2023년 3월 공식 개관한 가족어울림센터는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4천237㎡ 규모의 매머드급 복지 시설로 건립됐다.

내부 공간은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장난감 도서관, 실내놀이 등 핵심 보육 인프라를 비롯해 공동육아나눔터, 동네부엌, 동네

카페 등 소통과 연대를 위한 다목적 거점이 증설로 촘촘하게 집적화돼 있다.

이 같은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가동된 맞춤형 소프트웨어는 높은 수혜자 만족도로 이어졌다.

자녀와 부모가 동참하는 '가족코칭스쿨'은 지난해 한 해 90회에 걸쳐 1천849명이 참여해 4.89점

의 만족도를 보였으며, 특히 오감·신체발달 놀이교실은 4.88점의 최고점을 기록했다.

결혼이민자와 청년, 어르신 등 다양한 계층이 모인 '동네부엌' 요리교실 3개 과정은 120회기 동안 1천986명이 수강해 4.82점을, 관내 13개 면 단위 주민의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기획된 '가족

어울림 추억만들기'는 308명(13회기)이 참여해 4.86점의 긍정적인 평가를 각각 얻었다.

군은 1년여간 축적된 운영 성과와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프로그램 체계를 전면 재편해 질적 고도화에 나선다. 무엇보다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과 가정 내

남성의 육아 및 가사 참여를 독려하는 비전을 신설하고, 1인 가구와 노년층 등 세분화된 가족 유형을 포괄할 수 있도록 서비스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존 가족코칭스쿨은 '도란도란 가족놀이터(54회기·1천376명)', '가족 마음 잇기(8회기·360명)', '마음 속 가족교육(14회기·340명)' 등 3개 특화 과정으로 분리해 밀착 운영된다.

동네부엌 프로그램은 지역 특산물 활용 체험을 새롭게 도입해 마주봄 가족요리교실, 테마요리교실, 글로벌-K 요리아카데미, 해남의 맛 해남밥상 등 4개 과정(107회기·1천676명)으로 확대 개편한다.

면 단위 대상 추억만들기 사업은 심화 과정을 적용해 6회기로 집중 가동하며 실효성을 높인다. 해당 프로그램 참여는 센터 통합 누리집 또는 유선을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가족어울림센터가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의 일상을 아우르는 통합 복지 인프라로 온전히 자리 잡았다"며 "돌봄과 교육, 문화가 결합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 내 자발적인 돌봄 공동체를 형성하고 건강한 가족 문화를 확산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영암 왕인문화축제, 체류형 관광 모델 자리매김

28만명 방문...외부인 73% 차지
바가지요금·일회용품 등 3無 운영



고 공연까지 보느라 하루가 짧았다"고 전했다. 특히 축제의 핵심인 왕인박사 테마 퍼레이드(사진)는 조선통사사 행렬과 연계해 행사장의 밀도를 높였으며, 바가지요금·일회용품·차량 진입을 전면 통제하는 '3무(無) 축제' 운영 지침을 도입해 쾌적한 관람 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영암문화관광재단이 외부 대행사에 의존하지 않고 기획부터 현장 실행까지 직접 총괄하며 축제 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노하우를 내부 자산으로 축적하는 성과를 거뒀다.

윤재광 영암군수 권한대행은 "밀도 높은 체류형 콘텐츠와 엄격한 현장 관리, 친환경 기조를 결합해 영암형 관광 모델의 실효성을 입증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상생을 이끄는 관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 기자

함평군, 나비대축제 연계 '댄스크루 경연'

19일까지 전국 단위 모집

함평군이 지역 대표 축제인 나비대축제에 청년 세대의 유입을 촉진하고 관광객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규모의 댄스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16일 함평군에 따르면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기간 열리는 '나비 댄스크루 경연대회' 본선 무대에 오를 참가팀을 오는 19일까지 집중 모집

한다. 이번 대회는 힙합, 스트리트댄스, K-POP 등 특정 장르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전국 댄스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참가 희망팀은 마감일인 19일까지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되며, 군은 1차 사전 심사를 거쳐 축제 현장에서 최종 퍼포먼스 경연을 펼칠 본선 진출팀을 엄선할 계획이다. /함평=기영규 기자

대회 총상금은 1천60만원 규모로 책정됐으며, 금상과 은상, 동상, 인기상 등 다방면의 시상 을 통해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함평군 관계자는 "전국 단위의 댄스 경연을 통해 축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라며 "역량 있는 참가자들이 안전하게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무대 운영과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선 경연 무대가 마련되는 제28회 함평 나비대축제는 오는 24일부터 5월5일까지 함평역 스포공원 일원에서 대규모 생태 전시 및 체험 행사와 함께 개최된다. /함평=기영규 기자

국립목포해양대-장금상선, 해양 인재 양성 '맞손'

국적 해기사 수급·보호 방안 논의

국립목포해양대학교가 글로벌 해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경쟁력을 견인할 실무형 해양 전문 인재 육성을 위해 장금상선과 산학 협력을 강화한다.

16일 국립목포해양대에 따르면 최부흥 총장은 전남 정태순 장금상선 회장을 예방하고, 미래 해양산업 발전과 우수 국적 해기사 양성을 위한 양 기관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사진> 이번 간담회에서는 미래 해양인재 양성, 해양

강국 실현 전략, 국적 해기사 수급 및 보호 방안 등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양측은 해운·조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현장 중심의 교육과 국적 해기사의 안정적인 수급 및 처우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 총장은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현장 중심 교육 체계를 고도화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해양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정 회장은 그동안 해양인재 양성을 위해 목포해양대에 총 6억여만 원 규모의 발전기



금을 기탁하며 긴밀한 산학 관계를 이어왔다. 장금상선 역시 최근 세계 최대 선사 MSC와 유조선 계열사 지분 인수 계약을 맺고 초대형 유조선(VLCC) 운송 수익을 극대화하는 등 세계 시장에서 입지를 굳히고 있다. /목포=정태선 기자

진도군, 오늘 바닷길 축제서 '전복 소비' 촉진

20일까지 특산물 현장 판매
시식회·온라인몰 가입 혜택

진도군이 지역 대표 축제인 '신비의 바닷길 축제' 현장에서 경영난을 겪는 전복 생산 어가를 돕고 우수 농수특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대대적인 판촉 행사에 나선다.

16일 진도군에 따르면 17~20일 나흘간 열리는 '제46회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기간에 맞춰 현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특산물 직거래 장터와 소비 촉진 이벤트를 운영한다.

군은 축제장 내 전용 판매장을 조성해 김,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와 읍골, 구기자, 흥주 등

진도 대표 특산품을 현장 판매한다. 특히 최근 소비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어가를 돕기 위해 진도산 전복을 활용한 전복찜과 전복회 시식회를 진행하며, 현장에서 진도 전복 라면도 한정판 판매해 소비 확대를 유도한다.

또한 군 직영 온라인 쇼핑몰인 '진도아리랑몰' 신규 회원 가입 이벤트도 병행하며, 진도군 외 지역 거주자가 축제 현장에서 신규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혜택을 제공하며 특산물 고정 고객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관광객이 몰리는 바닷길 축제를 기점으로 지역 전복의 우수성을 알리고 실질적인 어가가 소득 증대로 이어지도록 판촉 행사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세권 기자

영광군,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단독주택 확대

시가지 중심 스마트 배출체계 구축

영광군은 16일 "공동주택 중심으로 운영되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단독주택 지역까지 확대하기 위해 재활용 동네마당에 RFID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를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음식물쓰레기 배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배출한 만큼 부담하는 '종량제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기존 종량제 봉투 배출 방식의 불편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RFID 종량기는 배출자가 교통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삽입한 후 음식물류 폐기물을 투입하면 배출량을 자동으로 계량해 수수료가 부과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군은 우선 영광읍 시가지 재활용 동네마당을 중심으로 시범 설치 후 운영 성과를 분석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주민 이용 편의를 위해 사용 방법 안내와 현장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영광=김동규 기자



강진군, 중년 여성 맞춤형 '한방 건강교실' 운영

23일까지 40-65세 20명 모집

강진군은 지역 중년 여성들의 선제적인 갱년기 증상 완화와 체계적인 건강 관리를 돕기 위해 특화된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6일 강진군에 따르면 군 보건소는 오는 23일까지 40~65세 여성 주민을 대상으로 '갱년기, 한방 건강교실' 참여자 2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사진> 이번 교육은 오는 24일부터 6월19일까지 매주 금요일 총 8회 과정으로 진행된다. 주요 커리큘럼은 갱년기 지수 등 기초 검사를 시작으로 불면증 예방 관리, 맞춤형 영양 교육,

요가 및 스트레칭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동의보감 건강법을 활용한 경옥환 제조 및 한방 샴푸 비누 만들기 등 실습 위주의 체험형 콘텐츠를 병행해 교육 실효성을 대폭 높였다.

참여 희망 대상자는 강진군 보건소 2층 건강증진팀을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강진군 관계자는 "한의약 기술을 접목한 맞춤형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여성들이 신체적·심리적 변화를 극복하고 자발적인 건강 관리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정영록 기자